

2. 日本 金融 改革의 靑寫眞

- (內容) 일본은 업종간 영역 철폐, 금융지주회사 설립, 보험·증권 수수료의 자유화, 외환거래 제한 철폐, 자산운용의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金融 시스템의 改革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展望) 政治圈의 利害 調整, 금융개혁으로 인한 중소기업기관의 부실화와 預金主의 保護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임. 성공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엔화의 切上과 東京證市의 活性化를 예상할 수 있음
- (示唆點) 日本의 금융개혁은 韓國내에서 추진중인 金融産業의 改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日本 政府는 금융시장의 自由 競爭, 透明性 및 國際性 달성을 목표로 한 金融시스템의 改革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背景과 內容) 독립 내각 구성에 성공한 하시모토 수상은 지난 11월 11일 대장상과 법무상에게 金融 改革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2001년까지 금융시장의 자유경쟁(free), 투명성(fair), 국제성(global) 달성을 목표로 한 금융개혁안은 1986년 10월 英國에서 단행된 빅뱅(Big Bang)<sup>2)</sup>의 내용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은행 및 증권의 專業主義 성격을 지녔던 英國 금융 제도는 런던증권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1992년 EU 금융통합에 대비한 빅뱅의 실시로 兼業主義로 전환되었음
  - 총선에서 공약한 행정개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서 금융개혁을 선택한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개혁안이 갈수록 뒤쳐지는 일본 금융시장의 競爭力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장상의 업무 개혁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80년대말 세계 최대의 주식 거래 시장이었던 동경 증시는 현재 뉴욕, 런던 증시보다 뒤쳐져 있고, 한편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시장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음

2)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빅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 허용,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 증권거래소 회원권 취득 조건의 완화, 단일 사각 제도의 폐지, 정부 채시장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改革案에는 업  
종간 영역 철폐, 금융지주회  
사 설립, 보험  
· 증권 수수료  
의 자유화, 외  
환거래 제한 철폐, 자산 운용  
의 규제 철폐  
등이 제시되었  
음

- 따라서 「호송선단방식」의 금융행정을 포기하고 市場 自律에 맡겨 동경 금융시장을 재생시키겠다는 것임
-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업종간 영역 철폐, 금융지주회사 설립, 보험·증권 수수료의 자유화, 외환거래 제한 철폐, 자산 운용의 규제 철폐 등이 제시되었음
- 독점금지법 개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이에 따라 업종간 영역을 철폐함
- 도시은행, 연금, 투신사 등의 자산운용 규제 철폐
- 거액의 투자자에게 불리한 고정수수료 제도로는 뉴욕의 월가, 런던의 시티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가정하에 현재 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競爭的 手数料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規制 緩和 對象>

현재 규제 내용	규제 완화 내용
· 주식 매매시 0.1~1.15%의 고정수수료 부과(10억엔 초과시 제외)	· 매매 수수료의 자유화
· 자회사 형태로 은행·증권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한이 많음(은행·증권 자회사의 주식 유통 업무 금지)	· 업무 범위의 확대
· 신탁은행과 생보의 연금자산 운용은 국제 등 안정성이 높은 분야에 50% 이상, 주식과 외채 부문에는 30% 이하로 운용 제한	· 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 철폐
· 증권투자신탁사는 모험기업 또는 비공개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	
· 지정은행에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함	· 외은주의의 철폐
· 일반 시중은행의 금융채 등 장기채 발행 금지	· 상품 규제의 철폐
· 손보 요율 산정회가 산출해서 대장성의 인가를 받은 후 회원사가 사용	· 요율의 자유화
· 독점금지법으로 순수 지주회사 설립 금지	·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展望) 政治圈의 協商과 함께 금융개혁으로 인한 중소금융기관의 부실화와 預金主의 保護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임. 만약 성공적으로 개혁이 이

정치권의 행정 부 및 금융기관 간의 利害調整 과 금융시장의 安定化措置 마 련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임

성공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엔화 절상 및 동경증시의 활성화 예상

韓國내 금융산업의 兼業化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임

구체적인 개혁 방법은 우리에게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임

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엔화의 切上과 東京證市의 活性化를 예상할 수 있음

-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임
- 예를 들어 잔고가 200조 엔에 달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우편지급,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농협, 간이보험, 주택전문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3월말 현재 약 35조 엔) 문제 등을 금융개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임
- 중소기업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예금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安定化 措置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임
-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본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으로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절상 추세를 나타낼 수 있음
- 영국의 빅뱅 결과를 유추해서 보면 주식 매매수수료의 자유화 등으로 동경 증시는 활성화될 수 있음

○ (示唆點) 日本의 金融改革은 韓國내에서 추진중인 金融産業 改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은행과 증권 업무의 분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美國의 글라스-스티걸 法의 폐지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음
- 美國과 日本의 兼業主義의 확산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 논의도 보다 활성화될 것임
- 이는 개방화 추세로 금융산업의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大型化, 專門化, 兼業化 등이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이 추진해야 할 금융기관간 利害調整의 방법 및 구체적인 개혁 일정(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음) 등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임 (김 찬 진)